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민수기 21:4-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3월 20일 연합예배 설교

⁴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⁵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⁶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⁷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⁸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⁹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불뱀과 놋뱀

구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번 주 본문인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심심찮게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지요? 성경에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뭐겠습니까? 뱀이지요. 창세기에서는 삼 장 에덴동산에서는 여자를 유혹한 동물이고, 나중에 야곱의 예언에서는 웅크리고 있다가 말발굽을 물어서 타고 있던 사람을 떨어지게 만드는 동물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경우지요. 먼저 나온다고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뱀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팬잡은 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반항의 뱀이지요 (딤후 3:6).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뱀이 다시 등장합니다. 먼저 불뱀입니다. 광야에 독뱀이 많았는데 물리면 온 몸이 독이 올라 뜨거워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라 옮겼습니다. 물뱀은 사전에 있지만 이 불뱀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원문은 스랍이라는 말인데 이사야가 불타는 제단 곁에서 본 천사 스랍하고 같은 말입니다. 불처럼 타오른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당장 불평을 그치고는 모세에게 뱀이 물러가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뱀이 물러갔다 어떻다 말은 없고 이미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 장대에 달라 하셨습니다. 놋뱀, 불뱀에 이은 두 번째 뱀입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라 하신 것도 재미있습니다. 뱀이라는 말과 놋 또는 구리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색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놋으로 만든 뱀도 진짜 뱀하고 비슷하게 보였겠지요. 어쨌든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든 그 놋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 하셨는데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았더니 정말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구원의 상징

모세가 만든 놋뱀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모세 당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도 그 놋뱀을 보고 살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참 뜻은 언제나 신약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16이지요?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님이 바로 앞 절인 3:14-15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뱀을 쳐다보고 산 것과 똑같습니다. 상황부터 비슷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불뱀에 물렸습니다. 죄는 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벌, 곧 죽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뱀에 물리자 겁이 나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른 채하다가 큰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고 불쌍히 보아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다가도 조금만 아쉬우면 금방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이 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변덕이 팔죽 끓듯 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백성들은 불뱀이 물러가게, 그러니까 더 안 물리게 기도해 달라 했는데 모세가 뭐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뱀에게 이미 물린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원리

그렇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뱀을 통해 백성을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터무니없는 방법을 쓰신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독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으면 입으로 독을 빨아주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을 만들고 그걸 쳐다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진리탐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봐라, 그냥 믿기만 해라,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들은 죄로 죽어가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뱀을 바라보는 것과 뱀에게 물렸다가 낫는 것 사이에 무슨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영생의 확신을 얻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믿을 때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잘은 모르지만 내 머리만 믿은 사람 가운데는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도 안 된다고 코웃음치고 그대로 죽어간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쳐다보아야 살고 그렇게 쳐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오늘도 똑똑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한 번만 쳐다보면 사는데,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십자가를 안 쳐다보려고 목에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줍니다.

터무니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3:16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승리

성경에 보면 뱀을 좋게 말하는 곳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을 물어 죽인 불뱀도 있지만 사람을 살린 뱀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연결하신 것처럼 뱀이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그 뱀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니 좋은 경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내실 때 뱀 같이 지혜로워라 하셨으니 뱀한테 배울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 10:16).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뱀은 결국은 안 좋은 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마귀의 대리인으로 나와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유혹한 이야기 잘 아시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한 거였습니다. 그 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기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슬쩍 빼 먹었습니다 (시 91:12-13). 뭐겠습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왜 빼먹었는지 아시겠지요? 예수께서 지금 마귀를 밟아 이기러 오셨는데 마귀가 어찌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후 마귀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발악을 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 곧 옛 뱀을 영원한 저주에 보내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 12:9; 20:2-10). 그 날이 오면 우리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뱀은 동서양 신화나 문학에서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옵니다. 좋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안 좋게 나옵니다. 먼 옛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그렇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통독을 하면서 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통해 그 마귀를 물리쳐 이기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 통독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보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잘 읽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를 맛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를 구약통독을 통해 날마다 때마다 만나시기 바라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